

# 아시아 명조 본문체

노바디

2006년 3월 27일

## 차 례

1	배경과 동기	2
2	아시아 명조체	3
2.1	세 가지 본문체	3
2.2	글꼴 예문	4
3	글꼴 사용하기	5
3.1	글꼴 사용 선언	5
3.2	pdfTEX, ps2pdf에 의하여 pdf 만들기	5
3.3	한계	6
3.4	설치하기	6
4	결어	7

## 1 배경과 동기

아시아글꼴은 아시아소프트社<sup>1)</sup>의 상업용 폰트이다. 아시아소프트社는 자사의 글꼴 가운데 일부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개 글꼴이 드문<sup>2)</sup>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 무료 폰트는 가뭇에 단비와 같은 것이어서, 초창기 한글 트루타입 글꼴 사용을 개발하던 당시 상당히 많이 사용된 바 있다. 공개 글꼴인 관계로 완성형 EUC-KR 범위의 문자밖에 갖추고 있지 않아서 “똥”과 같은 글자를 표시할 수 없고 또 그 당시 공개 트루타입 본문 글꼴 가운데 중요한 것(신명조) 하나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곤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내가 임의로 만들었던 “아시아폰트 기본 팩”은 H<sub>A</sub>T<sub>E</sub>X과 hangul-k를 이용하던 시절 제법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 글꼴을 이용하여 제작한 책도 나온 바가 있다.<sup>3)</sup>

한글 사용 환경이 Hangul-ucs로 이행하면서 아시아글꼴은 잊혀져갔다. 그리 되었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공개된 아시아글꼴이 완성형 인코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유니코드 인코딩된 폰트를 요구하는 Hangul-ucs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2. 아시아소프트社가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해줄 것에 대한 KTUG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sup>4)</sup> 좀더 보편적으로 이 무료 글꼴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특히 첫번째 문제점은 아시아소프트社가 글꼴의 리인코드와 배포를 허락하였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은 안타깝다.<sup>5)</sup>

---

1) <http://www.asiafont.com>

2) 명시적으로 공개이거나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출판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본문용 글꼴은 대강 다음과 같다. UHC글꼴과 은글꼴(GPL), 백묵글꼴, 문화(체)부 글꼴, 한겨레결체. 글꼴제작사에서 샘플로 공개하는 글꼴은 아시아글꼴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도 몇 개 정도는 (등록 후) 다운로드 사용이 가능하나 본문용 글꼴은 거의 없다. 윈도의 바탕/돋움/굴림/궁서, Adobe사의 한양명조 등은 공개 글꼴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3) 이주호, 『T<sub>E</sub>X과 책』, 온라인문서, KTUG, 2006을 참고하라.

4) 아예 이메일과 전화에 일절 답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시당하였던 기억이 있다. 자신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담당자분께는 감사드린다.

5) 최근 배포하는 아시아글꼴 무료 다운로드 버전은 유니코드 인코딩 글꼴로 대체되어 있

## 2 아시아 명조체

내가 개인적으로 아깝게 생각한 것은 아시아 명조체였다. 여섯 종류나 되는 명조 폰트族은 특히 92% 장평으로 본문 글꼴로 사용하였을 때 깔끔한 느낌을 주는 단정한 글꼴이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다. 고딕체에서는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했고 장식용 글꼴과 제목 글꼴은 유사한 다른 회사의 폰트에 비해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KS X 1001 漢字를 그런대로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이다.  $\text{T}_{\text{E}}\text{X}$ 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본문 글꼴이다.  $\text{T}_{\text{E}}\text{X}$ 이 어차피 브로셔나 포스터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가독성이 높으며 독자에게 친숙한 본문 글꼴이야말로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명조체를 type 1 subfont 형식으로 Hangul-ucs에서 사용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 2.1 세 가지 본문체

Hangul-ucs에서 본문체는 세 가지 글꼴로 하나의 폰트족을 이룬다고 가정하자.

1. 본문 바탕
2. 본문 굵은 바탕
3. 강조

여기에 각각 기울인글꼴(oblique)을 추가하거나 좁은장평글꼴(c-series)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 명조체는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강조 글꼴에 굵은 글꼴이 없는 이유는 원래 순명조체 자체가 굵은 글꼴이 없는 까닭도 있지만 강조를 다시 굵은 글꼴로 하는 것은 잉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co 글꼴이 없는 이유는 oblique 글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한글 문서에 더 적합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던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oblique 글꼴은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bo, co와 같은 기울임 변형체는 필요치 않다.

---

어서 `ttf2hlafont`를 이용하여 Hangul-ucs에서 사용이 가능한 듯하다.

표 1: 아시아 신명조체 폰트 요약

	본문	강조	
fontfamily	asmj	asgr	본문 기본
bfseries	(oasmjb)	--	굵은 글꼴
c-series	(oasmjc)	(oasgrc)	장평 92%
oblique	(oasmjmo)	(oasgrmo)	기울임
bf + c	(oasmjbc)	--	장평 92%, 굵은 글꼴
bf + obl	(oasmjbo)	--	굵은 기울임
obl + c	--	--	장평 92%, 기울임
bf + obl + c	--	--	장평, 굵은, 기울임
사용 글꼴	신명조, 견명조	순명조	

## 2.2 글꼴 예문

글꼴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 본문

default, m, n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default, m, it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default, b, n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default, b, it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default, c, n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default, c, it \_\_\_\_\_[default/m/it]로 대응  
 default, bc, n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default, bc, it \_\_\_\_\_[default/b/it]로 대응

### 강조

emph, m, n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emph, m, it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emph, c, n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emph, c, it \_\_\_\_\_[emph/m/it]로 대응

한글 글꼴에는 slshape와 itshape가 동일하게 취급된다. [gremph]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 itshape는 사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설정한 강조글꼴로 대체된다.

### 3 글꼴 사용하기

#### 3.1 글꼴 사용 선언

Hangul-ucs 문서 즉 dhucs나 memhangul-ucs 문서의 preamble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SetHangulFonts{asmj}{ungt}{untz}
\SetHanjaFonts{asmj}{ungt}{untz}
```

[gremph] 옵션을 활성화하였다면 다음 행을 추가한다.

```
\SetGremphFonts{asgr}{asgr}
```

#### 3.2 pdfTeX, ps2pdf에 의하여 pdf 만들기

현재 한글 pdf 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DVIPDFMx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트루타입 폰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pdfTeX의 트루타입 처리능력은 현재까지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pdfTeX 1.3 버전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있다고 하나 결정적으로 DVIPDFMx를 대신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LaTeX 작업을 하다 보면 pdfTeX을 꼭 써야 하거나, latex/dvips/ps2pdf로 pdf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자는 beamer와 같은 패키지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고 후자는 pstricks와 같은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글꼴은 type1 PostScript 글꼴이므로 DVIPDFMx, pdfTeX, ps2pdf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prosper나 pstricks를 이용하려 하는 경우<sup>6)</sup> pk 비트맵 글꼴이 아닌 윤곽선 한글 글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

6) pdftrick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이 글꼴을 이용하면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pdf 파일에서 모두 한글 텍스트의 검색과 추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pdfTEX의 경우는 `dhucs-cmap` 스타일을 이용해야 하고, ps2pdf 대신 매킨토시의 `pstopdf` 유틸리티를 이용해야 한다.

한글 텍스트의 검색과 추출이 가능해짐으로써 맥의 경우 TEXshop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pdf synchronization이 가능해져서 문서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고 Spotlight이 동작하기 때문에<sup>7)</sup> 자신의 문서 라이브러리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윈도 유저는 spotlight이 얼마나 편리한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 3.3 한계

이 글꼴은 KS X 1001 (EUC-KR)에 해당하는 문자들만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완성형 밖의 문자를 사용하는 문서에서는 결자가 생긴다. Hangul-ucs를 사용하는 목적이 완성형 밖의 문자를 처리하기 쉽다는 점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중대한 한계임에 틀림없으나, 무료 글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문 글꼴로서 아시아 명조체의 품위는 낮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하므로, 글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제작사에 감사한다.

이 글꼴로 만들어진 문서를 고해상도 출력기에서 실제 출력해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짐작건대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3.4 설치하기

맥 오에스 텐에서 설치하려면 첨부된 압축파일을 풀고 `texmf.local` 폴더 아래 디렉토리 구조에 맞추어서 넣어주면 된다. 폰트 설정은 `updmap`을 이용한다. `map` 파일이 두 개이므로 **이 두 개의 map 파일을 합쳐서**, 예컨대 `asiafonts.map`을 만든 다음 `updmap`에게 이 맵을 이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 updmap --enable Map=asiafonts.map
```

---

7) Mac OS X 10.4 (Tiger)에서

윈도 사용자분들은 어차피 pdfTeX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MiKTeX을 위한 별도의 설치 파일 묶음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MiKTeX의 디렉토리 트리 구조에 맞게 몇 가지 설정 파일만 이동시켜주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4 결어

“아시아소프트사 관계자로서” 만약 이 글꼴의 이와 같은 사용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이를 알려주기를 바란다. 아시아소프트사와 어떤 이유로든 접촉이 이루어져서 아시아글꼴의 사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소프트사 관계자가 아닌 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참고로, 아시아폰트를 반드시 type1 형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시아소프트사에서 배포하는 트루타입 형식 그대로 ttf2hlatexfont를 이용하여 폰트를 구성하고 DVIPDFMx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한글 폰트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폰트 묶음은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와 폰트 묶음의 재배포를 금지합니다.